



### 세계 산호초 33% 멸종 위기

기후변화·수질 오염으로 백화 현상 심각

기후변화와 수질 오염으로 산호초를 형성하는 전세계 산호초 가운데 3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연구가 나왔다.

39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컨서베이션 인터내셔널(CI) 해양 연구단은 704종의 산호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2.8%가 멸종 위급 상태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사이언스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 연구는 현재 학계에 알려진 산호초 구성 산호 845종 가운데 충분한 자료 수집이 가능한 704종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현재 위급(CR) 상태에 있는 종이 5개, 위기(EN) 종이 25개, 취약(VU) 종이 201개, 취약 근접(nt) 종이 176개, 관심필요

(lc) 종이 297개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광과 어로, 해안 보호 등 경제가치가 연간 300억달러에 달하는 산호초에 수백만 해안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면서 "산호초가 죽으면 여기서 먹이와 은신처를 구하는 동식물도 따라 죽게 되며 이는 생태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광주·전남 등 관광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 대기·수질·지하수·소음실태 등의 조사결과를 담은 '2007 환경(實)연감'을 발표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지하수 87곳에 대해 수질분석을 한 결과 24곳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시 해룡면 마산리 생활용수의 경우 질산성질소가 기준치(20mg/L)를 초과(26.748mg/L)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한 동식물이나 공장폐수

### 영산강환경청 발표 광주·전남 '환경질 연감' 살펴보니

## 지하수 28% 세균 등 오염 심각 광주 시민 밤낮으로 소음 피해

순천 해룡 생활용수 청색증 유발 질산성질소 검출... 학교도 소음 기준치 초과

광주·전남지역의 일부 지하수에서 각종 세균과 청색증(靑色症)을 일으킬 수 있는 질산성질소(NO3-N)가 검출됐다.

특히 광주지역 35개 주거지역과 교육기관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며 이는 생태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광주·전남 등 관광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 대기·수질·지하수·소음실태 등의 조사결과를 담은 '2007 환경(實)연감'을 발표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지하수 87곳에 대해 수질분석을 한 결과 24곳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시 해룡면 마산리 생활용수의 경우 질산성질소가 기준치(20mg/L)를 초과(26.748mg/L)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한 동식물이나 공장폐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산성질소는 아이들이 마실 경우 청색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청은 이곳에서는 기준치보다 6배 이상 많은 일반세균(620cfu/ml)도 검출되는 등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목포시 연산동에서는 기준치(250mg/L)보다 6배 많은 1543.3mg/L의 염소이온(Cl-)이 측정됐으며, 용당동에서는 431.9mg/L가 나타나는 등 10개 지역에서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발견된 지역은 바다를 매입하거나 바다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해수의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염소이온은 인체의 위해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질의 오염 정도를

확인시켜 준다.

환경 소음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시내 주거지역과 학교, 상업지역 등 45개 지점에 대해 환경 소음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7.8%인 35개 지점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낮보다 밤 시간대에 소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법원의 밤 시간대(밤 10시~새벽 6시) 소음도를 측정해 결과 환경 기준(낮 65dB, 밤 55dB)보다 12dB 초과한 67dB로 나타났다. 낮 시간대(새벽 6시~밤 10시)도 71dB로 측정되는 등 밤낮으로 소음이 시달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인 고등학교와 대학도 소음피해를 입고 있었다. 조선대 교수연구동의 경우 낮 57dB, 밤 52dB로 기준치(낮 50dB, 밤 40dB)보다 높았으며, 북구 운암동 금과공



광주·전남지역의 일부 지하수에서 각종 세균과 청색증(靑色症)을 일으킬 수 있는 질산성질소(NO3-N)가 발견되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영산강 목포 하구연 인근에서 조사원들이 측정장비를 이용해 수질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도 환경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소음의 경우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많은 지점에서 초과한 만큼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자체 등에 계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가장 관심있는 환경문제 "지구 온난화"

**한·일 공동 설문조사**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가장 관심있는 환경 문제는 '지구 온난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최근 전국(제주도 제외) 성인남녀 1천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88.5%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61.8%는 가장 관심있는 환경 문제로 지구온난화를 꼽았다. 또 쓰레기문제(51.8%)와 수질오염(46.1%), 대기오염(34.2%), 이상기온(23.3%) 등도 관심있는

환경문제로 꼽혔다.

'환경을 위한 노력방안'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69.6%), 수도감지기(69.1%), 쓰레기줄이기(64.8%), TV끄기(52.3%), 온도조절(36.8%)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여론조사기관인 엔알시(Nippon Research Center)에 의해 일본 열도에서도 공동으로 진행돼 조사 대상 일본인 중 87.1%가 가장 관심있는 환경문제로 '지구온난화'를 꼽았다.

일본인들은 또 분리수거와 수도감지기를 대표적인 환경보호 노력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 탐사 여행상품이 남극 훼손?

케임브리지대 연구 "쓰레기 더미 될 수 있다"  
고가 여행상품 환경에 미칠 영향 평가 촉구

'오염되지 않은 대륙' 남극이 관광객들의 발길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영국의 한 여행사는 20세기 초 탐험가 노르웨이의 아문센과 영국의 스콧 경이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하기 위해 탐사했던 여정을 반복하는 여행상품 '아문센 오메가 3 남극 레이스'를 내놓았다고 영국 더 타임스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1911년 아문센과 스콧은 각자의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점을 향해 출발했다. 결국 1911년 12월 14일, 아문센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했고, 아문센보다 한 달여 늦게 남극점에 도착한 스콧은 귀환 중 동사했다.

새로운 모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을 겨냥해 개발한 남극 탐사여행의 상품 가격은 4만2천파운드(약 8천300만원), 영국팀과 노르웨이팀을 포함해 10개 팀이 아문센과 스콧이 경정

한 지 97년 만에 올 겨울 다시 남극점 정복 경쟁을 벌인다. 영국팀에는 방송 진행자 벤 포들과 올림픽 조정 금메달리스트 제임스 크랙벨이 참여하고 있다.

안전요원까지 대동한 이 같은 고가 여행상품에 대해 일부에서는 "플레이보이들의 소풍 놀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케임브리지대 스콧연구소의 리즈 모리스 교수는 남극대륙이 온갖 종류의 쓰레기로 가득 찬 에베레스트산처럼 될 수 있다며 여행사는 남극 탐사 여행상품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주암·동북호 이어 탐진호도 9월부터 '조류예보제' 실시

녹조류의 발생 정도를 단계별로 예보해 상수원의 수질을 관리하는 '조류예보제' 실시 대상 호소(湖沼·호수)와 늪, 습원 등이 오는 9월부터 17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영산강 탐진호, 낙동강 회야호, 경주 덕동호 등 3곳이 조류예보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환경부는 정수처리 방해 등을 일으키는 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호수 가운데 조류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취수나 급수량이 많은 곳을 골라 조류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에는 탐진호와 지난 1998년 포함된 주암호, 동북호(2004년) 등이 조류예보제 시행 대상에 들어갔다.

한편, 조류예보제란 녹조류 농도를 일주일당 1회 이상 측정해 기준치 이상 오염도가 올라갈 경우 주의보 또는 경보 등을 발령하는 제도로 여름철 장마 후 기온이 상승하면서 녹조류가 대량 증식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장가계

www.kjg.co.kr

NAVER

**무안++장사(장가계) 직항** 매주 일·목 7회 편성 ₩ 649,000- 7/27, 7/31, 8/3, 8/7, 8/10, 8/14, 8/17 출발

**골프** 4명부터 출발가액 ₩ 899,000-

문의: 228-6070